

GRACE 선교소식

2025년 7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18명 (자체파송 78%)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이번 주 화요일부터 GMI 선교사훈련원 15기 미주 훈련이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5기에 참여한 12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은 태국, 튀르키예, 몽골, 탄자니아, 중국, 미얀마, 파키스탄, 그리고 난민 사역 등 다양한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GMI 선교의 비전 아래 더욱 훈련받고, 장차 GMI 선교사로 파송받아 열방을 섬기기 위해 헌신한 귀한 일꾼들입니다.

15기는 지난 3월 한국에서 훈련을 시작하여, 튀르키예에서의 단기선교를 은혜롭게 마친 후, 7월 7일 미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미주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에는 졸업 및 파송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8월 한 달은 은혜기도원에서 지내며, 광야와 같은 환

경 속에서 깊은 영적 체험과 집중 훈련을 받게 됩니다.

수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선교사의 자질론'을 강의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온 GMI 선교사 후보생들을 직접 만나 은혜를 나누니, 주님 앞에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이들과 함께 세계 선교의 마무리 비전을 이루어 갈 동역자들임에 감격이 큼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따뜻하게 섬겨주시니, 벌써 가족처럼 하나 되어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15기 선교사 후보생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주님께서 정하신 선교지로 귀히 파송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Jesus Light 장애인 자녀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깊이 심겨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저녁 비행기로 출국하여, 당진 동일교회, 창원 양곡교회, 서울 도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당진 동일교회 부흥회 인도: 7/16-7/18
- 창원 양곡교회 창립110주년 부흥성회: 7/20-7/23
- 도림교회 부흥성회: 7/25-7/27
- 필리핀 TD 1기: 7/28-8/1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림교회에서의 부흥집회와, 필리핀 GTD 1기 훈련을 인도하게 됩니다. 은혜로 무더위를 이기는 '이열치열 집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P국

정00 / 정00 선교사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갑자기 나서 모두들 긴장하고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였는데 다행히도 미국의 중재로 3일 만에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전쟁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을 늘 지지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던 캄란이라는 젊은 비행기 조정사의 뛰어난 활약으로, 이 나라 모든 메스미디어와 정부와 군부대에서까지 대대적인 축하와 환영, 상금을 주고 국민적 영웅으로 추대하는 바람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적대감과 테러에 대한 위험이 한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부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정에서 치유사역과 복음사역으로 많은 모슬렘가정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사역자의 가정에 순수 매주 주일 7-8의 순수 모슬렘인 가정 2-30명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는 가정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치유와 복음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두 기적과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서로 두려움 없이 실제적인 간증을 하기에, 이 모임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메튜비전센터의 골격과 외부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건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중간에 건축비가 넉넉하질 않아서 페인트공사, 전기공사, 창호공사, 문짝공사, 바닥공사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 봄 신학교가 5월 말에 끝나고 학생과 교

사진들이 6, 7월에는 기도와 말씀 전도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평일과 금요일의 특별 기도모임과 주변 전도 그리고 이 나라 전지역으로 4명이 한 팀이 되어 1,000킬로 이상 멀리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숙원이었던 가시리 학교와 교회 회사를 가로막고 있던 120평 부지를 장래 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렵게 구입하였습니다.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지난 5월 세션에는 한국의 인천큰빛교회 권오성목사님, 울릉양문교회 원용국목사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강의를 해 주셨고, 10일에는 제 16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32명의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쓰고 빛나는 졸업장을 가슴에 안은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목회를 하다가 공부하러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연령대가 40~50대 이상 됩니다. 올해는 70대 노부부 두 분도 졸업하였는데 최고령 학생이지만 수업시간마다 제일 앞 자리에 앉고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교회리더로 왔다가 졸업할 때는 그 연세에도 교회를 개척하여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할머니 졸업생이 졸업장을 받고는 좋아서 보고 또 보고 한참을 들여다 보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주변 해안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매년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32명의 졸업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7월 4일부터 다음 세션이 시작되는데 신실하고 준비된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킬리피에 있는 GMI 교회 한 군데 우물을 파서 물탱크를 설치하였고, 마라파 지역에 두 군데 교회 건축을 마쳤습니다. Bore singwaya 보레싱과야, Kipangaajeni 키팡가제니 두 교회인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건축에 동참하여 물을 길어 나르고, 벽돌을 나르며 함께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직 흙집이 많은 시골 동네에 새로 건축된 교회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어떻게 그 구석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는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두 교회가 그 마을의 진리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Mbaoni(음바오니) Grace, Ufanisi(우파니시) Grace 교회의 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바쁘게 2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각 반별로 가서 책을 읽히게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도 공립도서관에서 사서 1명을 6개월간 저희 학교에 파견해 주어 독서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서에 관한 세미나도 진행하고, 사서가 반별로 도서관에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크리스천 리더들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최근에 중고등학교의 땅문서가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땅문서가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 이름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 안된다, 케냐 시민권을 받아서 다시 하라, 그 사이 땅주인은 몇 번이나 찾아와서 우기가 시작되니 농사지어야 한다며 씨를 구입할 돈을 달라고 하고, 가족이 아프다고 약값을 받아가고 그렇게 지금까지 1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드디어 양도세와 토지세를 내고, 변호사와 땅 주인 가족들과 함께 만나 잔금을 지불하고 GMI 이름으로 땅문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귀한 물질을 보내주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킬레오 공동체

드디어 보건소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4월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대우기로 인해 길이 망가져 모래 시멘트 배송이 어려



워 우기가 끝난 후 망가진 길을 닦아 배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 외부 미장을 시작으로 잘 마무리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킬레오 그레이스 교회

예배 때마다 잔치입니다. 온 성도는 춤을 추고 예배당을 돌며 뛰고 흔들며 드려지는 예배는 다윗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모슬렘 땅에 세워진 그레이스 교회는 마치 아돌람 굴처럼 이 땅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모슬렘 과부들과 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순수한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일마다 너무 기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레이스 유치원 초등학교

6월 방학을 준비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학기 말 시험을 치루느라 스트레스로 얼굴들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 탄자니아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성적이 민감해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엄청 구박하니 선생님들은 수준에 맞추어 문제를 내느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쉼터

저희 교인 중 중학생인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 미혼모 쉼터에서 지내는 중 미성년 성폭행 수사가 진행되어 지난 4월 정부 권고로 문을 닫게 되었었는데, 모든 수사가 만료되어 6월에 다시 미혼모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여중학생 아이 아빠로 저를 지목하여 수사하며 저를 울가매어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중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아 아이 아빠를 못찾아 포기하여 저희의 요구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T국

최OO / 이OO 선교사

주님의 은혜와 은혜한인교회 한기홍담임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OO 선교사의 건강은 느리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암은 발견되지 않고, 치료에 좋은 결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유방암으로 임파절, 뼈로 암이 전이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지냈던 시간이 이제는 지나간 시간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OO 선교사님은 로마서 5장2-5절 말씀을 붙들며, 주님이 저희 가정을 통해 이루실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온 이후 2021년부터 사역한 서울은혜교회에서 올해 2월 다음 사역 준비를 위해 사임하고, 현재는 GMI은혜교회 주일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임 후 3월부터 20일 금식, T국을 방문하여, 5월 첫 주까지 지난 시간 사역했던 이스탄불 평강교회(에센릭교회) 형제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것은 2015년부터 함께 했던 평강교회(에센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교회가 되었으며, 한국의 한 교회를 통해 청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본(은혜의 만남) 1기 사역을 진행하였고, 저희 가정이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1기가 끝난 2주 후, 은혜받았던 청년들이 2기 리본(은혜의 만남) 사역을 위해 매일 밤 교회에 나오고, 나오지 못한 지체들은 줌으로 기도하고 미팅을 하며 준비하였고, 8명의 캔디데이터들을 초청하여 2기 리본(은혜의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있던 저희 가정이 T국에 방문하여 이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 조금 넘는 T국 사역에서 사역의 열매 없이, 이OO 선교사의 암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밖에 없었고, 긴 투병 생활로 지쳐 좌절하며, 고통으로 보냈던 시간을 보상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 3기 리본(은혜의 만남)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 것은, 평강교회(에센릭교회) 청년 그룹이 교회에 리본(은혜의 만남) 사역을 정착시키는 비전을 나누고, 성경 말씀으로 T국 전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나누



었습니다. 이스탄불 평강교회(에센릭교회)와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OO 선교사가 지난 5년 동안 함께 하며, 양육하고 있는 에브루 자매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함께 이스탄불 평강교회(에센릭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가정인데, 남편 직장으로 인해 한국에 오게 된 T국 자매입니다.

이OO 선교사는 에브루 자매를 통해 T국에서 이루실 사역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에브루 자매를 섬겼습니다. 이 가정을 섬기며 이OO 선교사의 건강도 함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OO 선교사는 에브루 자매를 은혜교회의 은혜의 만남, 사랑의 불꽃 TD를 경험하게 하고, 이제는 팀멤버로 함께 섬기며,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제하며 T국에서 복음전도자로 섬기길 기도합니다.

I국

김OO 선교사

지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제가 이 시간을 잘 통과하도록 돕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받은 수술에서 완전히 회복 중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힘이 되어 주셨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Tigris & Euphrates Syrian family (bottom left) & Local church river (above) 회복 이후, 저는 아랍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매일 도전이지만, 주님께서 제 앞에 두신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저를 준비시키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알고 지낸 시리아 가정들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방문하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며, 그들의 인내를 목격하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외국 땅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I국 가정들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해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최근 몇 달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터키에서 열린 TD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축복의 시간이었고, I국 형제자매는 훈련 기간 동안 흘러나온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며, 더 깊은 부르심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터키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그다드로 향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펼쳐졌던 땅을 직접 걷는 것은 매우 겸손한 경험이었습

니다. 이 땅, 고대 바벨론이며 아브라함의 고향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지이자 예언의 현장이었던 I국은 단지 역사적인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18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의 분교로 연결된 지역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신앙을 지켜온 가족들과, 예수님을 따르게 된 무슬림 배경의 성도들(MBB)을 만나는 것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히 서 있습니다.



미국

김OO / 양OO 선교사

5월 중순에서 6월 초 필리핀 일정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시고 챙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주님께 주님께 너무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번엔 필리핀 Grace Camp 3기와 아이따 민족 VBS를 참여하였고 그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필리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들과 인연이 된 지 이제 6개월 조금 넘었지만 주님은 저희 마음에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친구들이 리더로 자리잡기까지 든든한 멘토가 되기 위해 저희 부부도 더 힘써 주님의 말씀을 불드려요 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올해 말 단기선교를 도전하는 팀이 생겼고, 또한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고 언젠가 중동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이 있을 믿습니다.

GRACE CAMP

이집트 민족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이집트를 기억하고 기도하겠다고 자원한 청소년 2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단민족을 품은 자매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큐티훈련으로 리더들과 계속 소통하고 그들이 더 성장해 나가는 꿈을 품습니다.

VBS

산속 정글에 사는 아이따 원주민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VBS. 5개 필리핀 교회가 연합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모두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INA GRACE PROJECT

계속해서 수단난민 학교 보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육실, 도서관, 등등 아직도 필요한 건 많고 재정은 정해져 있고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 학교 아이들에게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생들도 월급을 줄 수 없어, 자원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선생이 부족하여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선생 자리를 메꾸기 위해 저희 부부도 선생으로 자원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볼 것을 믿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학교 첫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가 이어지고 리더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미국

김OO / 김OO 선교사

고아원 말씀학교

일 년에 한번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말씀학교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사49:16)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초등부(저학년, 고학년)와 학생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전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분반 활동을 통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말씀학교가 다양한 활동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마지막 날은 다함께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영으로 충만하게 육으로 강건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년 자립 공동체 「복음자리」

일 년 넘게 청년 자립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했던 '떼인 떼인' 청년이 그동안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배정받은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던 청년이었지만 함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믿음생

활에 열심이었던 청년이어서 떠난 보내는 것이 너무 아쉽긴 하지만 청년 복음자리 공동체의 역할이 자립의 디딤돌이기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정들었던 공동체를 떠나는 것과 보내는 아쉬움에 모두가 눈시울이 불거진 채 아쉬움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더불어 공동체에 새로이 '응에' 청년과 '야다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불교도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MNG EDU 센터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었던 썸머스쿨 교육과정을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부족한 학과목을 가르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썸머스쿨과정을 마치면서 한 학부모님이 오셔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앞두고서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감사의 인사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

이고 보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마친 아이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격려를 했습니다.

드림씨드 25년 학사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첫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곳저곳을 바라보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이곳에서 교육받는 동안 아이들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일 년 동안 진행되는 학사일정을 주님께서 붙들여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지난 지진이후 건물 끝자락과 지면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겨 보수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M국

한OO / 김OO 선교사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양곤은 이제 우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방학도 있었던 이 시기에 은혜 교인들은 펜션에서 2박 3일간 하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불안한 국내 정세와 경제적인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는 꼭 보내 달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대구의 어느 노회에서 특별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전이 안 되는 곳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추억이 가득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한 그룹홈 아이들은 청소년 연



합캠프에, 초등학교들은 지역교회에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해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류하여 시각을 넓히고 친분을 쌓는 것도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한글학원

한글학원은 초급반과 상급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급반 학생들은 한국에 가거나 한국 회사에 다니는 사람 또는 다니기를 원하는 등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탤이 적지만 초급반은 한류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시적입니다. 그럼에도 한글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로 초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입니다. 외국인 국비 장학생 대학원 과정에 지원했던 선희가 3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학교 성적뿐 아니라 담당 교수와의 사전 협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희도 대학원생은 처음 보내는 거라서 사전 정보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특별히 공대는 더 까다롭네요. 아무튼 선희가 낙심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계속 응원할 따름입니다.

호산나 교회 전도

호산나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동네 주민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일 예배로 초청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보보 전도사가 다른 일은 좀 서툰데 비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에는 탁월합니다. 전에는 혼자 가더니 이제는 교인들과 함께 갑니다. 청년들을 전도할 때에는 교회 청년들을 데

리고 가고 장년들을 상대할 때에 나이가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고 또한 교회 일에 참여하게 하여 소속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교센터 부지 구입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교헌금을 모으고 모아서 드디어 선교센터를 지을 부지(67평)를 샀습니다. 양곤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들 집 2곳과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저희로서는 임대료 상승이 큰 부담입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사역의 확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2층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1층은 그룹홈 아이들의 숙소로, 2층은 교회와 문화센터로 세울 꿈을 품습니다.

기도제목

1.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소서
2. 동역자들과 하나 되게 하소서
3. 선교센터를 세워 주소서
4. 한글학원에 수강생들을 보내 주소서
5. 열매 맺는 사역되게 하소서
6.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N국

김OO / 오OO 선교사

4월 28일 SPBA BIBLE COLLEGE 졸업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N국 극서쪽 000는 힌두인들의 핍박이 심한 지역입니다. 네팔 행정부에 발견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컴퓨터 과정, 음악과정, BEAUTY PALOR과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9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신실한 신입생

들을 보내주소서.

2. 농업 비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학교 재정 확보를 (바사나. 쌀. 밀을 심을 예정) 위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7천평을 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4.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물질이 부족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질 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날씨가 매우 덥고 어려운 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적인 선교

<1분단상 141-7월호>

- 김대규 장로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 바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다(호6:6). 이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열방의 족속들이 주앞에 예배(경배)하므로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열방의 주재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시22:27,28).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에서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 드리는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을 넘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발견케 된다. 따라서 예배는 선교의 동기를 부여하고 동력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고로 선교와 예배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예배라는 말은 흔히 쓰고 있다. 선교를 예배적으로 라는 말은 거의 쓰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배적인 본질이 빠진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배적인 선교는 예배가 무엇인가? 에서 찾아야한다. 예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공적으로 드러지는 예배에 앞서 어떤 예식이 아닌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순종하여 자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예배적인 삶의 측면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깨달아 그분이 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교의 초점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에 끝이지 않고 더 나가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역할까지 맞추어져야 온전한 선교가 되고 진정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배의 삶이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나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셨다.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나라를 증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긍휼히 여기셨다.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과 천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배적인 삶을 통한 예배적인 선교의 원형이 아닐까. 진정한 선교의 틀이라고 본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이나 선교단체들에서의 선교활동은 활발하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이다. 각자 나름대로의 전략과 훈련을 통하여 무장된 하나님의 Warrior들을 격전지로 내 보낸다.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쓰여 지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긴장할 대목들이 있다. Warrior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무장이 되게 하였는가. 얼마나 예배적인 삶의 토대를 쌓게 했는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게 하였는가. 얼마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과 섬김이 사랑으로 배어나게 했는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 되게 했는가. 얼마나 전략과 전술보다 현 지동화에 역점을 두었는가. 주님과 생명을 바꿀 수 있도록 격려가 되었나하는 점들이다. 이는 예수님을 닮은 예배적인 선교를 지향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하겠다. 예수님을 닮은 선교이면 얼마나 좋을까. 단기선교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영적인 기초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단기선교가 될 것이다.

고등학교시절 한 미국 선교사가정에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보고 배우고 충격을 받은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집안에는 세상 것이 거의 없고 단촐하고 검소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안락함, 몸에 밴 배려와 겸

손, 선택된 언어, 몸에 익숙한 기도, 여태껏 보지 못한 우리와는 다르게 구별된 생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것이었다. 충격이었다. 나는 왜 저리 못 사나? 부러웠다.

오랜 후 선교부에서 35년을 섬기고 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접하였다. 그런데 과거에 만났던 옛 선교사와 같은 분은 많은 수가 아니었다. 세월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성경적 진리와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왜인지 씁쓸하기만 했다.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현대교회나 선교단체가 지나고 있는 문제이자 고민이라고 본다. 전략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우선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적인 삶이 선교에 그대로 흡수되어야 하는 예배적인 선교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내 자신이 살아 있으면 실패한다. 세속화, 합리성, 실리성, 형식화, 인위성, 실적주의를 외면하지 않고서는 이를 수가 없다.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산 제물로 받쳐져 외적인 행동이나 예식이 아닌 마음에 우러나는 진리가 우선하는 삶이 드러져야 한다.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행하므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새로운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는 삶으로 선교에 임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적인 선교를 이루게 된다. 이때 하나님이 순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P국 정OO / 정OO 선교사

1. 이제 연한 순처럼 시작된 모스크가정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2. 6, 7월 여름방학에 이나라 전역에 전도팀을 보내게 하소서
3. 이 나라 소수의 크리스찬과 교회가 이 나라를 주관하는 주체가 되게 하소서
4. 그동안 세워진 12개 학교와, 그 학교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일학교와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성장되어 그 지역의 중심 센터가 되게 하소서
5. 오지와 미전도지역에 세워진 여러 사역자들이 모두 강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소서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1.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지낼 수 있도록
2.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3. 보건소 건축이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도록
4. 하나님의 그레이스 교회가 아돌람 굴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T국 최OO / 이OO 선교사

1. 이OO 선교사 암 치유,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어, T국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2. 이스탄불 평강교회(에센릭교회) 리더인 세브다 선교사님과 성도, 청년들을 위해 말씀 사역, 리본(은혜의 만남) 사역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3. 평강교회(에센릭교회) 청년들이 리본(은혜의 만남) 사역을 통하여 T국 교회와 부흥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4. 이상민, 이에브루 가정(한국/튀르키예 다문화 가정)이 T국 선교사로 다시 섬길 수 있도록
5.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T국과 무슬림 영혼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도록



I국 김OO 선교사

1. 성령 충만해지도록
2. 아랍어, 문화, 관계를 지혜롭게 잘 배우도록
3. 그리스도와와의 친밀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잘 나누도록
4. 다가오는 결정들과 사역 기회 가운데 분별력과 은혜가 있도록
5. 하나님의 공급과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E국 김OO / 양OO 선교사

1.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수 있도록
2.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더 심어지고 선포가 되길
3. Misr Lotus Project 자료들이 잘 정리 될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4. 아랍어 공부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기를
5. Grace Time QT 사역을 통해 현지 리더들이 더 세워질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6. 수난난민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7. 다음주 6개월 비자신청을 하러 갑니다. 큰 문제 없이 비자발급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M국 김OO / 김OO 선교사

1.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기에 발생하는 독감으로부터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2. MNG EDU 센터
 - 25년 학사일정을 은혜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 교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강제징집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교사를 만나도록
 그동안 아이들의 통학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택시 등을 빌려 진행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어 스쿨버스 구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무명으로 재정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지면을 통해 깊이 감사드리며 현재 필요 재정의 50%가 채워졌습니다.
3. 청년 자립 공동체 「복음자리」를 복음과 빵의 역할을 균형있게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4. 7월 21일부터 3일간 청년대상 말씀학교 「은혜와 자유」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몰도바 정석영 / 김현진 선교사

1.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2. 저희 부부의 마음의 평안과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3.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몰도바에서 벌어진 일들이 주께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려 하심인지, 주님께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 신학대학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대학원의 학비를 채워주시고,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시도록)
5. 몰도바에서의 6월 말 출국 일정과 이후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순종함으로 따라 걸을 수 있도록
6. 재정의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들이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가정이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재정과 기도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케냐 의료선교, 엘살바도르 인카운터
이번주에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필리핀 TD#1 (7/26-8/2)
S/L: 한기홍 목사
렉터: 이희갑 안수집사
문의: 안규범 안수집사 (714-328-4820)
TM: 6/26, VC106
- 파라과이 AFA#12 & 신학교 3기 졸업식 & 치과사역 (7/28-8/7)
S/L: 안영식 목사
렉터: 노우중 안수집사
- 중미 4개국 연합 AFA 1기 (8/31-9/6)
S/L: 송종호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 몽골인카운터#1 및 교회 개척선교 (8/31-9/9)
S/L: 변재령 목사
디렉터: 이영국 집사
문의: 이한철 집사 (858-335-9415)
렉터: 장준영 장로

- 타지키스탄(두산베) TD (9/1-9/6)
S/L: 최윤섭 선교사/김영환 목사
문의: 213-500-5344

- 콜롬비아 목회자 AFA 5기 (10/4-10/11)
S/L: 한기홍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O/T: 7/24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